

기억과 기록*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

김 명 훈**

1. 머리말
2. 기억과 역사
3. 기록과 기억
 - 1) 기록과 기억의 상관성
 - 2) 기록과 기억 관계의 재고찰
4.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14년도 기상청 「기상·기후 역사자료의 수집과 활용방안 연구」(CATER 2012-6130)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겸임교수. 주요 논저 : 『전자기록 평가론』, 한국의대 기록학연구센터 총서1, 진리담구, 서울, 2009; 「전자기록 환경하의 현행 평가제도 개선방향 분석: 평가방식 및 평가체제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9, 한국기록학회, 2009;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기능평가 프로세스 분석」, 『정보관리연구』 39(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8; 「매뉴스크립트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한국기록관리학회, 2008.

▪투고일 : 2014년 9월 16일 ▪최초심사일 : 2014년 9월 23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2일.

[국문초록]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은 기록의 의미와 기록관리의 역할 변화란 관점에서 볼 때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연유하여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정립된 기록의 의미와 기록관리의 역할은 아직도 완고하다. 실증주의 사조에 기반을 둔 문자화된 종이기록 중심의 관리이론 및 방식은 아직도 지배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주로 공기록과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 생성된 기록들을 대상으로 관리하며 과거의 사실에 대한 보고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억 담론은 문자화된 공기록 중심의 기록관리를 탈피하고, 다원화된 사회 속에 기록의 의미 및 기록관리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동안 국내외 기록학계에서는 기록은 행위에 대한 객관적, 중립적 증거라는 점에서, 기록은 곧 기억이라는 단순한 인식이 만연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속에 기록이 지닌 객관성, 중립성에 회의를 품게 되었고, 사회의 다원화 속에 공기록 중심의 기록관리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과 기억의 관계 정립을 위한 기반 연구로,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관리의 역할 및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기록과 기억 간의 관계 정립을 위한 단초로 기억 담론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고찰한 다음, 그동안 기록학 영역에서 진행되어 온 기억을 둘러싼 제반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발판으로 사회적 기억 형성을 위해 기록학 영역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 및 향후 방향성을 논의코자 하였다.

주제어 : 기록, 아카이브, 기억, 집단기억, 사회적 기억, 구술, 사회적 출처

1. 머리말

21세기에 도래된 전자기록 환경은 기록의 의미와 기록관리의 역할 변화란 관점에서 볼 때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임이 분명하다. 비단 전자기록 환경은 종이기록에서 전자기록으로의 매체 변환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종이기록 환경에 기반을 두어왔던 기록 및 기록관리의 본질적 의미를 재모색케 하고 있다. 지난 역사를 조망할 때 기록의 의미와 기록관리의 역할은 시대 및 환경에 부응하며 끊임없이 변모해왔음을 염두에 둘 때, 분명 최근의 사회 환경 속에서 기록의 의미와 기록관리의 역할은 새로운 자리매김을 요구받고 있다.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기록의 생성 연원이라 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 메커니즘 및 사회 환경이 변모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록의 역할 및 활용 패턴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¹⁾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연유하여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정립된 기록의 의미와 기록관리의 역할은 아직도 완고하다. 실증주의 사조에 기반을 둔 문자화된 종이기록 중심의 관리이론 및 방식은 아직도 지배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주로 공기록과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 생성된 기록들을 대상으로 관리하며 객관성 및 중립성을 지닌 과거의 사실에 대한 보고로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포스트모더니즘 영향 속에 기록이 지닌 객관성 및 중립성은 의심받고 있으며, 아울러 공기록 및 문자화된 기록 중심의 관리방식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필자는 전자기록 환경 하의 패러다임 변화 중 하나로 현용단계에서의 기록의 의미와 기록관리 역할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종이기록 시

1) David Bearman, "Diplomatics, Weberian Bureaucracy, and the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in Europe and America", *Electronic Evidence: Strategies for Managing Records in Contemporary Organizations*, Pittsburgh: Archives & Museum Informatics, 1994, pp.256-261.

대의 패러다임과 달리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 일익을 제공하는 지식정보 자원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지에서이다.²⁾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비현용 단계에서의 기록의 의미와 기록관리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용 단계에서 기록의 의미와 기록관리의 역할을 강화시켜 줄 키워드가 ‘지식정보’였다면, 비현용단계에서의 키워드는 ‘기억’(Memory)이다.

그동안 국내외 기록학계에서는 기록은 행위에 대한 객관적, 중립적 증거이라는 점에서, 기록은 곧 기억이라는 단순한 인식이 만연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속에 기록이 지닌 객관성, 중립성에 회의의 품게 되었고, 사회의 다원화 속에 공기록 중심의 기록관리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사회학을 필두로 한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기억 담론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문자화된 기록의 객관성에 대한 맹신 속에 ‘썩여진’ 기록을 역사사료로 간주하며 역사가의 주관적 사고에 따라 과거상을 재구성해왔다면, 기억은 문자로 남기지 못한 사회 내의 다양한 과거상을 복원하는 방안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억 담론은 문자화된 공기록 중심의 기록관리를 탈피하고, 다원화된 사회 속에 행해지는 다양한 군상들의 행위들을 보존·전승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다.

기억 문제는 국내외 기록학계에서 빈번하게 언급되어 온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기록이 행위에 관한 객관적 증거이자 기억을 보관하는 유용한 도구라는 전제 하에, ‘기록은 곧 기억’이란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기억이 무엇이며 기록과 기억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기억 형성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수행되지 못해왔다.³⁾ 한편 기록은 기억 보존 및

2) 김명훈,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업무친화적’ 기록관리 방향성 분석」, 『정보관리연구』 38(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7.

3) 그동안 서구 기록학계에서 진행된 기억과 관련한 연구성과들은 Margaret Hedstrom, Trond Jacobsen, Ricardo Punzalan이 발표한 2013년도 논문에 정리되어 있다. 여

전송을 위한 유용한 도구라는 전제하에 기록관리 영역의 역할을 제시한 논지들도 제출되었다. 이러한 논지들은 사회 내의 기억 형성과 관련하여 기록관리의 역할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지니지만, 기록과 기억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결여된 채 기록을 통해 기억 구축에 일조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⁴⁾

최근 들어 기록과 기억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모색한 논의들이 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 입각해 기록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재속고하며 기록과 기억의 상관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지만, 기억 형성을 위한 기록관리의 역할 및 방향성 모색이 있어서는 아직 충분한 분석이 미약하다.⁵⁾ 한편 근래 들어 국내 기록학계에서도 고무적으로 기억 내지 집단기억 개념을 도입한 연구성과

기서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영어권 기록학 학술지상의 기억과 관련된 160여 편의 연구성과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기억의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였고, 또 아직 본격적으로 기록과 기억의 관계에 대해 연구가 심화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Margaret Hedstrom, Trond Jacobsen, Ricardo Punzalan, "Invoking "Collective Memory": Mapping the Emergence of a Concept in Archival Science", *Archival Science* Vol.13(2), 2013을 참조.

4) 이에 대해서는 Hugh A. Taylor, "The Collective Memory: Archives and Libraries as Heritage", *Archivaria* Vol.15, 1982-83; Richard J. Cox, "The Concept of Public Memory and Its Impact on Archival Public Programming", *Archivaria* Vol.36, 1993; James O'Toole,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56(2), 1993 등을 참조.

5) 이에 대한 대표적 연구성과로는 Michael Piggott, "Archives and Memory",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 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Vol.24, Sue McKemmish,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Frank Upward eds.,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 2005; Jeannette A. Bastian, "Flowers for Homestead: A Case Study in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American Archivist* Vol.72(1), 2009; Margaret Hedstrom,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More than a Metaphor, Less than an Analogy",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Terry Eastwood & Margaret Hedstrom eds., Santa Barbara: ABC-CLIO, LLC, 2010; Caroline Brown, "Memory, Identity and the Archival Paradigm: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Archival Science* Vol.13(2), 2013 등을 참조.

들이 제출되고 있지만, 기록과 기억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고, 아울러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관리의 역할 모색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있다.⁶⁾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과 기억의 관계 정립을 위한 기반 연구로, 사회적 기억⁷⁾ 구축을 위한 기록관리의 역할 및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기록과 기억 간의 관계 정립을 위한 단초로 기억 담론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고찰한 다음, 3장에서는 그동안 기록학 영역에서 진행되어 온 기억을 둘러싼 제반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발판으로 4장에서는 사회적 기억 형성을 위해 기록학 영역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 및 향후 방향성을 몇 가지 관점에 한정하여 논의코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과 기억 간의 관계 정립을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 한 편의 논문으로 양자 간의 관계를 완벽하게 밝히기 어려우며, 또한 사회적 기억 형성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

-
- 6) 이러한 국내 연구성과로는 정영란, 「홀로코스트기념관을 통해본 주제기록관(Special Subject Repository)에 관한 연구 : '집합적기억(Collective Memory)'의 수집과 수집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2003, 석사학위논문; 원종관,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2007, 석사학위논문; 오동석,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역할: 민족주의·초민족주의와 집단적 기억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2008, 석사학위논문; 최정은, 「사회적 기억과 구술기록 기록화에 관한 연구: 구술기록 수집 및 기획 단계에서의 아키비스트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2011, 석사학위논문; 조민지, 「기억의 재현과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 담론의 새로운 방향」, 『기록학연구』 27, 한국기록학회, 2011; 박해진, 「집단기억의 기록화와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구성: 노근리사건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2013, 석사학위논문 등을 참조.
- 7) '사회적 기억'은 기억이 형성되는 사회적 과정이자 기억이 실천되는 장으로, 일상생활의 실천 가운데 형성되어진다. 알박스(Maurice Halbwachs)는 기억의 사회화 과정에 주목하여 개인기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집단기억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집단기억이 '사회의 기억'(Memory of Society)이라면, 사회적 기억은 '사회 내의 기억'(Memory in Society)이라 할 수 있다. 권기숙,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 35(5), 한국사회학회, 2001, 204-205쪽.

및 방향성을 충분히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향후 비판적 분석을 위한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2. 기억과 역사

한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은 사회적 틀 속에서 기억의 다양한 매개물을 통해 집단의 정체성을 생성·유지·강화·전승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사회 내 개개인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기억과 정체성을 유지하게 된다. 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느끼는 동네주민·도시민·지역주민으로서의 기억과 정체성을 통해,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배우고 습득되고 강요된 기억과 정체성을 통해, 초국민국가적 흐름과 더불어 점차 그 의미가 커져가는 국가 간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세계 시민으로서의 기억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는 상호 간에 일정한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커다란 충돌 없이 유지되어 간다.⁸⁾

과거는 인간이 현재 바라는 모습대로 탈바꿈되어 나타나게 된다. 인간이 과거 체험을 기억하려는 것은 과거 자체가 소중해서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투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간은 과거의 체험을 선별적으로 기억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일정 의미와 방향성을 부여하게 된다.⁹⁾ 현재 지향적이고 현재의 토양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기억이라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선택적일 수밖에 없

8) 민유기, 「국가기억 대 민간기억의 갈등과 대안적 기념문화의 모색: 프랑스 방데 쾨뒤푸의 경우」, 『사회와 역사』 78, 한국사회사학회, 2008, 66쪽.

9) 전진성, 「어떻게 부담스런 과거와 대면할 것인가?: “과거극복(Vergangenheitsbewältigung)”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독일연구』 6, 한국독일사학회, 2003, 133-134쪽.

다.¹⁰⁾ 기억은 여과되어 어떤 것은 계속 존속하고 어떤 것은 억압되며 나머지는 폐기된다. 따라서 기억은 망각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기억은 일반적으로 개인기억과 집단기억으로 양분하여 파악된다. Henri Bergson의 이론에 토대를 둔 개인기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정신적 상태의 연속을 의미하는 ‘지속’(durée) 개념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바로 인간 기억의 토대를 이루며, 이 ‘지속’은 각 개인에만 귀속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개인기억은 집단기억에 비해 논리적으로나 중요성 면에서 우선적이라고 파악한다.¹¹⁾ 즉 집단기억이란 낮과 밤, 사계절과 같이 각 개인들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호주관적 시간을 매개로 삼아 각 개인들에 의해 공유된 기억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Bergson의 제자인 Maurice Halbwachs에 의해 체계화된 집단기억의 개념은 기억 속에는 본질적으로 집단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모든 형태의 개인기억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말로, 인간의 기억 자체는 사회적 관계의 산물인 말과 글을 매개로 삼아 형성되고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언어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적 집단적 범주들인데, 이것 없이는 기억의 구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순수한 개인적 기억은 존재할 수 없으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기억은 집단기억일 수밖에 없게 된다. 가장 개인적인 것으로 보이는 기억조차도 사회집단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성립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개인기억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확인된 것들이며, 이러한 점에서 기억은 사회화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¹²⁾

이와 아울러 행위로서의 기억은 사회적 준거에 의존하고 개인의 기

10) 안병직, 「한국사회에서의 ‘기억’과 ‘역사」, 『역사학보』 193, 역사학회, 2007, 281쪽.

11)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85, 역사교육연구회, 2003, 162쪽.

12)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85, 역사교육연구회, 2003, 162-164쪽.

역은 기억행위를 통해 사회적 틀에 묶이게 된다는 점에서, 기억은 모두 집단기억의 성격을 띄게 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기억은 과거보다는 오히려 현재 지향적이다. 기억은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출발하며, 과거의 현상이 아니라 현재의 현상이 된다. 즉 기억은 과거의 경험이 고정된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³⁾ 이는 곧 집단기억은 에너지를 가지고 활성화되는 것으로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항상 새롭게 절충되고 조정된다는 말이다.¹⁴⁾

집단기억의 형성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공간 및 시간 그리고 집단과의 연관성이다. 우선 집단기억에서 공간이 갖는 의미는 아우슈비츠나 탑골공원과 같이 각 민족이 겪었던 위기의 정점이나 그 위기로부터의 반전을 증언해주는 상징으로서, 해당 민족의 집단적 정체성을 재발견해주는 기억의 착지점 역할을 해준다. 또한 집단기억이 인간의 의식 속에서 실체화 되기 위해서는 기념일이나 정치적 사건과 같은 사회적 시간과의 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공간은 사회적 역사적 성격까지 띄고 있는데, 이것은 기억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집단과의 사회적 연관이라 할 수 있다. 특정 사건이 한 집단의 공동체적 기억 속에 뿌리를 내리려면 그 사건에는 그 집단만의 독특성과 지속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 독특성은 다른 집단에 대해 자기 집단을 구별하는 외적 기준이 되는 동시에, 자기 집단 구성원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내적 통합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¹⁵⁾

개인기억은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일정 의미를 가질 때에만 집단기억으로 정착될 수 있다.¹⁶⁾ 한 사회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망각하는지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다. 집단은 기억의 공동체

13) 안병직, 「한국사회에서의 ‘기억’과 ‘역사」, 『역사학보』 193, 역사학회, 2007, 281쪽.
 14) Assmann, 『기억의 공간』, 변학수 외 역,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33-35쪽.
 15)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85, 역사교육연구회, 2003, 164-166쪽.
 16) 안병직, 「한국사회에서의 ‘기억’과 ‘역사」, 『역사학보』 193, 역사학회, 2007, 282쪽.

를 지향하며 공동의 기억을 통해 일체감을 확인하고 유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기억이 차이와 상이함을 억압하고 공통점과 유사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집단적 연속성과 응집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억은 사회적 틀이 없는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며, 사회를 통해 얻어지고 사회적으로 재생산되고 인지되며 배치되게 된다.¹⁷⁾ 곧 집단이 기억을 만들 듯, 기억이 집단을 만든다는 말이다.

그동안 사회 내 이러한 집단기억을 유지·전승하는 기능을 담당해 온 것은 바로 역사학이다. 한 사회의 역사상은 사회구성원의 정체성을 확보해주는 집단기억으로서 하나의 공공적 기능을 발휘해왔기 때문이다.¹⁸⁾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되거나 희미해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기억이 지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을 그동안 역사학이 제공해왔다. 과거의 모든 사건은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 의해 지각되고 그 가운데 일부가 기억되며, 또 다시 그 가운데 일부가 역사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 전환된다. 공문서와 사문서, 일기와 전기, 기념물, 사진, 음성, 동영상, 구술증언 등 인간의 기억은 다양한 매체로 저장되어 왔고, 역사가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섭렵하면서 기억의 주관성을 배제시킨 채 실증사학에 토대를 두며 최대한 기억의 객관화를 시도해왔다.¹⁹⁾

하지만 최근의 포스트모던 사조 속에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과 그 사건에 관해 서술된 역사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²⁰⁾ 역사는 인간의 과거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기억을 담을 수 없으며, 역사연구 역시 가치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17) 한성훈, 「기념물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집단 정체성: 거창사건의 위령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8, 한국사회사학회, 2008, 45쪽.

18) 김유경, 「국민국가의 집단기억과 역사교육·역사교과서」, 『창작과비평』 30(1), 창작과비평사, 2002, 397-398쪽.

19)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85, 역사교육연구회, 2003, 167-168쪽.

20)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85, 역사교육연구회, 2003, 160쪽.

는 입장에서이다. 역사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과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탐구가 아니라 역사가가 특정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과거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담론일 뿐이며, 역사 서술에서 당파성이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역사의 기능은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송두리째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망각을 통해 그 가운데 인간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유용한 기억을 부각시키는데 있게 된다.²¹⁾ 아울러 기억이 지닌 주관성을 염두에 둘 때 역사는 특유의 비판적 기능을 통해 기억의 주관적 오류를 수정하며, 미시적일 수밖에 없는 기억에 거시적 조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기억을 구조적 시각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가 있다.²²⁾

한 시대의 집단기억이 역사로 전환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구로 작용하는 것은 ‘기억의 문서화’ 과정이다.²³⁾ 특정 사건에 대해 동시대인이 공유하는 기억이 유지되는 기간은 인간의 생물학적 수명의 한계 때문에 3~4세대, 약 80년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동시대인들에게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은 그 사건이 발생한지 대략 40년 이내에 문서화 과정을 밟게 되며, 기억 가운데 역사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문서화된 기억이 된다. 이러한 기억의 역사화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선택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선택과 배제의 판단기준은 이들이 속한 사회집단의 가치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²⁴⁾ 이를 염두에 둘 때 아카이브에 보존된 기록은 기억을 유지·전송하는 유용한

21) 안병직, 「한국사회에서의 ‘기억’과 ‘역사」, 『역사학보』 193, 역사학회, 2007, 291-294, 296, 303쪽.

22)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85, 역사교육연구회, 2003, 171-173쪽.

23) Wolfgang Schenkel, “Wozu die Ägypter eine Schrift brauchten”, A. u. J. Assmann, Christof Hardmeier eds., *Schrift und Gedächtnis*,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1988, p.50(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85, 역사교육연구회, 2003, 175쪽에서 재인용).

24)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85, 역사교육연구회, 2003, 175-176쪽.

도구임이 분명하며, 기록의 평가는 기억과 망각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행위가 된다. 그동안 기록학 영역이 자부해 온 기억의 수호자 역할은 바로 이러한 논리에서 출발한다.

3. 기록과 기억

1) 기록과 기억의 상관성

인간의 기억은 유한성을 지닌다.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쉽게 잊혀질 뿐만 아니라 주관성·편향성 및 부정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²⁵⁾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간의 기억은 영속적으로 전승되기 어렵다. 이에 인간의 행위를 문자화된 형식으로 남긴 기록을 객관적 사실 및 증거로 인식하는 경향이 근대시기 등장한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인간의 기억을 영속화시키고 전승하는 도구 중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문자화된 기록이 자리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증주의에 뿌리를 둔 기록관리 전통에서는 기록은 곧 기억으로 등치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져갔다.

기록과 기억의 관계에 대한 기록학계의 초기 논의는 Hilary Jenkinson의 사고에서 엿볼 수 있다. 관료제적 행정조직을 기반으로 초창기 기록관리 이론 및 방식을 개발한 Jenkinson은 업무기능에 책임을 지닌 자들은 업무 수행을 위해 기억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억을 보관하는 편리한 수단을 ‘쓰기’(writing)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기록은 기억

25) Michael Piggott, "Archives and Memory",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 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Vol.24, Sue McKemish,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Frank Upward eds.,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 2005, p.327.

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된다.²⁶⁾ 즉 업무자는 업무의 수행 및 연속성을 위해 기억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억을 수록한 문서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으로, 인간 기억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이를 저장해 영속화 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기록을 파악한 것이다.

기실 기록은 기억을 저장해 명료화시키는 간단하면서도 편리한 도구임은 분명하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희미해지고 아울러 왜곡되거나 주관적으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쓰기라는 저렴하면서도 명확한 방식을 통해 기억을 저장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근대 관료제의 출현 이후 공식적인 업무처리에서는 결재자의 서명이 첨부된 문서가 조직 내의 주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자리해왔으며, 기록관리 영역에서는 맥락을 지닌 기억이 저장된 기록을 관리·보존함으로써, 조직의 활동내역에 대한 증거 및 정보를 전승해왔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기록관리 영역에서는 ‘기록은 곧 기억’이라는 인식 하에 기록관리는 기억을 유지하고 전승하는 핵심적인 활동으로 인식해왔다.

기록과 기억의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Jimerson에 의해 이루어졌다. Jimerson은 기억을 고정화시켜 불변하는 자료로 변환시킨 것이 기록이라는 전제 하에, 기록학적 관점에서 기억을 개인기억(Personal Memory),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 역사기억(Historical Memory), 아카이벌 기억(Archival Memory)이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개인기억은 특정 사건에 대해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기억으로,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개인기억은 집단기억을 입증하거나 확실시하는데 증거로서 활용되며, 항상 새로운 의미와 해석을 통해 끊임없이 재형성되는 기억이다. 집단기억은 과거의 기록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에 근거하기 보다는 신화 내지 단순화된 관념에 기반을 둔 기억으로, 사실성, 타당성,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채 현재의 필요에 부응하여 끊임

26) Hilary Jenkinson, *A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Problems of War Archives and Archive Making*,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22, p.23.

임없이 변화하고 재해석되는 기억이다. 역사기억은 아카이브, 유물 및 기념물 등에 대한 해석을 통해 최대한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과거’를 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역사기억을 구축하기 위해 역사가들은 주로 특정 시기 특정 사건과 관련해 생성된 아카이브에 의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브 기억은 진본성 및 신뢰성을 지닌 기록을 통해 유지된 기억으로, 기억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은 역사 이래 아카이브를 통해 기억을 보존해 왔다. 이러한 아카이브 기억은 인간 소통이 지닌 시공간적 한계 및 기억의 일시적인 한계를 확장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²⁷⁾

기록이 기억 전승을 위한 유용한 도구라는 전제하에 기록관리 영역의 역할 모색에 관한 논의는 Hugh Taylor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기록을 역사사료를 제공하는 역사학의 보조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탈피하여 하나의 문화유산(Heritage)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동안 건축물, 사적지, 박물관, 예술품 등만이 인류의 과거에 대한 문화유산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러한 유산들만으로는 과거의 인간 생활상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록은 이들 문화유산처럼 시각적 효과도 없고 박스에 담겨 숨겨져 있지만, 과거를 탐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이자 사회적 기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록은 과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서 과거와 직접 소통케 하며 아울러 심미적·감성적 느낌 역시 부여해주는 강력한 기억 매체이다. 그러므로 기록관리 영역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기념관 등 문화유산기관들과 협력하고 기록 수집에 문화유산의 형성이란 측면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공공기억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⁸⁾

이러한 논의를 발판으로 기록과 기억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

27) Randall C. Jimerson, "Archives and Memory", *OCLC Systems & Services* Vol.19(3), 2003, pp.89-91.

28) Hugh A. Taylor, "The Collective Memory: Archives and Libraries As Heritage", *Archivaria* Vol.15, 1982, pp.118-125.

색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우선 Richard J. Cox는 ‘공공기억’(Public Memory)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기록의 폭넓은 대중적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공공기억의 개념은 사회사 역사연구 경향과 맞물린 학제적 역사연구의 동향 속에 미국 내 중요한 연구주제로 자리한 것으로, Cox는 공공기억의 개념을 ‘정부 및 시민을 포함하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한 과거에 대한 인식 및 이용’으로 정의하면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기록관리 프로그램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Cox는 아카이브는 기억의 자원이 되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기억의 장소로서 아카이브의 보다 활발한 대중적 활용을 위해 홍보·아웃리치·공공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여 공공기억을 형성·촉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²⁹⁾

사회적 기억 구축에 있어 기록관리 영역의 사고 전환을 주장한 논의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지들은 그동안 인식되어 온 기록의 의미 및 기록관리의 역할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James O’Toole는 역사적·행정적 가치 등 기존의 기록에 대한 가치를 확장시켜 ‘상징적 중요성’(symbolic significance)이란 의미를 새롭게 부여함으로써, 사회 기관으로서 아카이브는 총체적 사회 내 집단 의식의 배양 및 집단 유산의 형성에 일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⁰⁾ Tom Nesmith 역시 ‘아카이빙’(Archiving)이란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기억화(remembered) 내지 기록화(recorded) 행위를 통해 기억을 만드는 절차로 정의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억을 시공간에 걸쳐 전송·조직화시키며 평가를 통해 기억과 망각을 주도하는 행위로 파악하였다.³¹⁾

29) Richard J. Cox, “The Concept of Public Memory and Its Impact on Archival Public Programming”, *Archivaria* Vol.36, 1993, pp.122-133.

30) James O’Toole,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56(2), 1993, pp.234-255.

31) Tom Nesmith, “Seeing Archives: Postmodernism and the Changing Intellectual Place of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65(1), 2002.

기록관리 영역의 국제표준인 ISO 15489에서도 기록은 기억을 영속화시키는 도구로 파악한다. 우선 기록관리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개인 및 단체 혹은 집단의 기억 유지’³²⁾를 설정함으로써, 기록을 기억을 보존하고 전송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 보유기간을 결정하는 원칙으로 ‘공동의 기억의 일부로서 과거 및 현재의 의사결정 및 활동과 관련된 정보 보유’³³⁾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유할 가치를 지닌 기록으로 ‘과학적이거나 문화적 또는 역사적인 목적으로 조직의 기억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록’³⁴⁾을 제시함으로써 기록과 기억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존의 기록학 논의들을 새롭게 조명시키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는 기록과 기억의 관계 역시 새롭게 파악케 해준다. 이는 무엇보다 기록이 과연 과거의 사실에 대한 객관적·중립적 산물인가라는 원초적인 질문부터 던져주기 때문이다.

2) 기록과 기억 관계의 재고찰

그동안 기록학 영역에서는 기록을 사실에 대한 객관성, 활동에 대한 증거성을 지닌 중립적이면서도 객관성을 지닌 산물로 파악해 왔다. 근대 이후 실증주의의 영향 및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기록 생성 메커니즘 속에, 행위의 과정 속에서 인위적인 아닌 자연적으로 생성·축적된 문서화된 기록은 구두 및 기억과는 견줄 수 없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의 저장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포스트모던 환경에서

32) ISO,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Records Management - Part 1: General*, ISO, 2001, 4항.

33) ISO,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Records Management - Part 1: General*, ISO, 2001, 9.2항.

34) ISO,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Records Management - Part 1: General*, ISO, 2001, 9.2항.

이러한 신화는 재속고 되고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기록은 생산자에 의해 인식된 '실제'만을 반영한다는 사고에 근거한다. 즉 기록은 생산자의 이념, 입장, 가치관 및 생산자가 소속된 조직 내지 제도의 견해가 투영된 주관적 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³⁵⁾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사회 과정의 모든 산물들이 그러하듯이 기록은 결코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중립적 산물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어떠한 사건도 완벽하게 혹은 철저히 서술될 수 없으며, 모든 기록은 이를 생성하도록 훈련받은 자들의 집합적 지식을 대변하기 때문이다.³⁶⁾

기호학적 측면에서도 기록은 주관적 산물이다. 언어적 측면에서 기록은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e)로 이루어진다. 기표는 소리·문자·몸짓·상징 등 의미를 표시하는 수단이며, 기의는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에 해당한다. 기표와 기의가 결합해 기호는 일정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는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 즉 의미는 특정 기호에 완전히 현전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현전과 부재 간의 일종의 끊임없는 교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은 사실의 모방일 뿐 사실 자체를 그대로 현전시키지는 못한다.³⁷⁾

위의 논리에 따른다면, 기록은 기억을 대표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기록은 기억을 신뢰할 수 있게 저장하는 도구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기억이 모두 기록으로는 등치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억은 일반적으로 볼 때 정확한 '사실'(fact)이라기 보다는

35) Eric Ketelaar, "Recordkeeping and Societal Power",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 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Vol.24, Sue McKemmish,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Frank Upward eds.,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 2005, p.285.

36) John Van Maanen & Brian T. Pentland, "Cops and Auditors: The Rhetoric of Records", Sim B. Sitkin & Robert J. Bies eds., *The Legalistic Organizatio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1994, p.53.

37) 김일도, 「기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2010, 석사학위논문, 26쪽.

과거에 대한 향수 내지 감정적 노스텔지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억은 항상 변화하는 현재 속에서 재상기됨을 감안할 때 다분히 사회적 심리적 속성을 지니는 정치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³⁸⁾ 또한 기억은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 구축·유지된다. 이는 곧 기록이 곧 기억이란 등호는 온전히 성립될 수 없다는 말이다. 특히 사회의 저변부에 있는 기억은 사회 주류층의 문자화된 공식 기록과 달리, 일기·편지·엽서·포스터·구술 및 구전·노래·춤·의례 및 의식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화 되어 남아 있으며, 일반적으로 볼 때 이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보존되지 못해왔다.³⁹⁾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속에 기록과 기억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논의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지들은 대개 기록은 곧 기억으로 등치될 수 없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기록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수많은 도구들 중의 하나이며, 개인기억을 사회적 기억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수많은 기억 도구들 가운데 기억을 어떻게 전승하는가의 문제는 그 사회의 기술 및 문화방식에 따라 상이하다. 특정 사회에서는 구전을 중시하고 또 특정 사회에서는 문서화된 기록을 중시하게 되며, 따라서 기록은 구전보다 문서화된 증거를 중시하는 서구 중시의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억 도구들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⁴⁰⁾

또한 기록은 특정층의 입장이 반영된 기억을 전승하는 도구라는 견해를 제기한 논지들도 제시되었다. 기록은 그 자체로 기억이 될 수는 없지만, 문서화란 명확한 수단을 통해 과거의 잔유물을 구체화시켜 주

38) Brien Brothman, "Perfect Present, Perfect Gift: Finding a Place for Archival Consciousness in Social Theory", *Archival Science* Vol.10(2), 2010, pp.158-160.

39)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한국기록학회, 2012, 10쪽.

40) Laura Millar, "Touchstone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and Archives", *Archivaria* Vol.61, 2006, pp.119-121.

는 기억의 저장소 역할을 담당해준다.⁴¹⁾ 하지만 기록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완벽한 내러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 실제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조각난 파편들만을 제공해준다. 기록은 권력자 내지 사회 주류층의 입장이 투영된 신뢰할 수 없는 목격자이다. 따라서 기록은 기억 구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집단기억을 완벽히 형성해주는 것이 아닌 특정 입장이 반영된 편파적인 내용을 전달해 준다는 것이다.⁴²⁾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지난 2009년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운동은 분명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자 사회적 기억이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후에는 주로 외교통상부 및 농림부, 청와대 등 정부 측의 입장이 투영된 기록들만 남게 된다. 기록관리법 및 기타 제도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보존기간 책정 제도를 통해 이들 정부기관들의 기록들은 아카이브에 이관되어 보존되지만, 수많은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들의 기록은 관리·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가 부재한 관계로 체계적으로 남아 있지 못하게 되기 쉽다. 따라서 10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은 정부 측의 입장을 공식기억으로 인식하기 쉬우며,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는 파편화되어 사회 저변부의 대항기억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아카이브는 인간 기억의 모든 것을 보유한 곳이 아니며, 의식적인 기록의 선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아카이브는 역사가의 연구활동을 통해 기억의 형성에 일조하는, 근대란 시대가 만들어낸 기억의 잠재적 공간이라는 말이다.⁴³⁾ 아을

41) Randall C. Jimerson, "Constructing Memory",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Chicago: SAA, 2009, p.211.

42) Verne Harris, "The Archival Sliver: Power, Memory, and Archives in South Africa", *Archival Science* Vol.2(1), 2002, pp.63-86.

43) Carolyn Steedman, "The Space of Memory: In an Archive", *History of the Human Science* Vol.11(4), 1998, p.67, 78.

러 기록의 의식적인 선별에는 한 사회 내의 권력 내지 주류층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승자들만의 기록이 당대에 남아 역사로 서술된다는 것이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회 내의 지배층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항상 아카이브에 개입해 왔고, 따라서 아카이브에는 이들의 입장을 반영한 기록들이 주류를 이루어왔다.⁴⁴⁾ 분명 역사적으로 볼 때 아카이브에는 항상 권력이 개입되어 왔다. 그것이 국가권력이든 종교권력이든 헤게모니를 장악한 특정 조직의 권력이든 아카이브는 항상 권력과 함께 존속해왔다. 아카이브를 생성·보존·전승함으로써 역사연구 및 사회적 기억 형성, 국가 정체성 정립에 권력을 행사해왔다는 말이다.⁴⁵⁾

이러한 점에서 아카이브는 먼지 쌓인 과거의 기록을 단순히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며, 행위의 결과들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객관성·중립성을 지닌 곳이 아니다. 기록의 생성·관리·활용은 사회적 힘의 표현이다. 이는 기록이 레코드키퍼시스템으로 획득되기 전부터 관여되는데, 즉 무엇이 아카이빙할 가치를 지니는가를 고려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선택과정인 ‘Archivalization’에 사회적 힘이 반영된다는 말이다.⁴⁶⁾ 기록 역시 생산자가 의도한 목적에 따라 묘사·재연·상징화·기호화된 것이다. 따라서 기록 또한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투명한 거울이 아닌 기록 생산자의 입장, 권력관계, 당대의 사회 환경 등이 혼재된 주관적 산물이다.⁴⁷⁾

44) Randall C. Jimerson, “Archives and Memory”, *OCLC Systems & Services* Vol.19(3), 2003, p.91.

45) Joan M. Schwartz and Terry Cook, “Archives, Records, and Power: The Making of Modern Memory”, *Archival Science* Vol.2(1), 2002, p.2, 13, 18.

46) Eric Ketelaar, “Recordkeeping and Societal Power”,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 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Vol.24, Sue McKemmish,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Frank Upward eds.,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 2005, pp.294-295.

47) Terry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포스트모던 환경에서 기록 및 아카이브에 대한 이와 같은 사고는 곧 기록 및 아카이브가 사회적 기억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회의를 품게 한다. 국가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예산 및 권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부여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 내 지배층의 입장 내지 목소리를 주로 보존하게 되며, 사회 비주류 계층의 입장은 간과되기 쉬울 수밖에 없다.⁴⁸⁾ 지금까지 공기록 중심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은 이러한 면에서 편향적인 기억만을 남겨온 셈이다. 사회적 기억은 사회 내 다양한 계층의 기록들을 통해 구축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향후 방향성을 유추할 수 있다.

4.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

사회적 기억 형성을 위해 기록관리 영역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기록은 곧 기억으로 등치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적 기억은 물리적인 기록 형태로만 전승되기 보다는, 구전·의례·축제·상징물·이야기 등 다양한 기억 저장 도구들을 통해 전승되어 왔고, 기록은 이러한 수많은 기억 저장 도구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록은 곧 사회적 기억으로 등치되지 않으며, 기록은 잃어버린 기억을 발견하거나 복원시키는 다양한 전승 도구들 가운데 하나의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⁴⁹⁾ 하지만 아카이브는 그동안 잊혀져왔던 기억의 복원 내지 재발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자원의 보고

Concepts”, *Archival Science* Vol.1(1), 2001, p.7.

48) Randall C. Jimerson, “Archives and Memory”, *OCLC Systems & Services* 19(3), 2003, p.92.

49) Margaret Hedstrom,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More than a Metaphor, Less than an Analogy”,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Terry Eastwood & Margaret Hedstrom eds., Santa Barbara: ABC-CLIO, LLC, 2010, p.176.

라 할 수 있다. 기록은 곧 기억으로 등치될 수는 없지만, 기억의 환기 및 보존을 돕고 사회적으로 공유시키는 유용한 도구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⁵⁰⁾

이를 감안할 때 기록관리 영역은 사회적 기억 구축에 기여하는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 내지 사회체제 내에서 박물관, 기념관, 도서관, 미술관 등은 각기 상이하면서도 유사한 정보원들을 통해 사회적 기억 형성에 일조하며, 기록관리 기관 역시 기록화 된 정보들을 통해 사회적 기억 형성의 한 축을 담당한다. 각각의 기관이 독자적으로 모든 사회적 기억을 구축할 수 없듯이, 각각의 기관들이 보유한 파편적인 정보원들이 모여 사회적 기억이란 모자이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기억 형성을 위해 아카이브, 박물관, 기념관 및 다양한 기억 프로젝트 간의 협력이 수행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의 경험은 이에 대한 선형적 사례를 제공해준다.⁵¹⁾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 속에서 기록관리 영역은 사회적 기억을 형성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Terry Cook은 사회적 기억 구축작업을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은 아카이브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²⁾ 기록관리 영역이 사회적 기억 형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기록관리 영역의 본원적 사명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전통적으로 기록관리 영역은 당대의 기록을 통해 당대의 사회

50) Laura Millar, “Touchstone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and Archives”, *Archivaria* Vol.61, 2006, pp.125-126.

5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Anthea Josias, “Toward an Understanding of Archives as a Feature of Collective Memory”, *Archival Science* Vol.11(1), 2011, pp.104-110을 참조.

52) Terry Cook,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Vol.43, 1997, p.18.

상을 형성시키는 사명을 수행해왔다. 기록의 생성단계에서부터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적용해 생성된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유지시키고 출처주의를 적용함으로써 기록이 생성된 당시의 맥락을 확보하면서, 현재의 기록을 통해 현재의 사회상을 적극적으로 남기기 위해 평가 및 수집 방법론을 개발해왔다. 이러한 기록관리 활동을 기반으로 문서화된 기록을 통해 사회적 기억을 명확하면서도 투명하게 형성시켜 왔으며,⁵³⁾ 인간의 활동과 경험을 시간 및 공간을 초월하여 전승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적 기억의 망각은 대부분 기록의 파기를 통해 이루어져왔음을 염두에 둘 때, 기록의 부재는 사회적 기억 형성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⁵⁴⁾ 이러한 점을 볼 때 당대의 기록을 통해 당대의 사회상을 전승하는 기록관리 영역은 사회적 기억 형성의 중추적인 부분임은 분명하다.

기록관리 영역이 사회적 기억 형성에 공헌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문은 완전무결한 증거로서의 기록을 관리·보존한다는 데 있다. 기록관리 영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여타 정보관리 영역에 비해 기록이 생성된 맥락과 함께 행위의 내역에 대한 증거성을 중시해왔고, 이는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더욱 강조되었다. 0과 1의 비트스트림으로 구성된 전자기록은 내용과 구조, 맥락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게 되며, 더불어 행위의 내역을 있는 그대로 투명한 증거성의 확보가 예전처럼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의 행위에 대한 맥락을 지닌 증거로서의 기록이 지닌 속성은 과거의 사실내역을 씨여진 증거로서 보존되어 미래에 전달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억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53) Jeannette A. Bastian, "Flowers for Homestead: A Case Study in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American Archivist* Vol.72(1), 2009, p.116.

54) Michael Piggott, "Archives and Memory",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 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Vol.24, Sue McKemmish,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Frank Upward eds.,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 2005, p.325.

인간의 기억은 유한하며 또 개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록관리 영역은 과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통해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기억의 물리적 공간을 제공해 주는 강점을 지닌다.⁵⁵⁾ 환언하면 사회적 기억의 전달 도구로서 기록관리 영역이 지닌 이 점은 사회적 기억이 희미해지고 개조되며 심지어는 말살되는 동안에도 아카이브는 완고하게 있는 그대로의 기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카이브는 오랫동안 잊혀져왔거나 잘못 전해진, 또한 억압받거나 비밀로 감추어진 과거의 사건에 대한 유일한 정보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다.⁵⁶⁾

사회적 기억 구축에 대한 기록관리 영역의 적극적 참여는 기록관리 영역의 본원적 사명 강화에도 일조케 해준다. 신뢰할 수 있는 맥락을 지닌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쉽게 사라지는 사회적 기억은 기록을 통해 명료해진다면, 한편으로 기록은 사회적 기억 개념을 통해 그 의미 및 가치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⁷⁾ 먼저 사회적 기억은 기록관리 영역이 기존의 공식화된 문서만이 아니라 사회 내 소수자의 기록 역시 관리·보존해야 하는 논리를 강화시켜 준다.⁵⁸⁾ 기실 그동안 기록관리 영역에서는 주로 공공기관과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 생성된 사회 주류층의 기록을 대상으로 관리 이론 및 방법론을 전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라이프사이클론이나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 출처주의 원리 및 최근 전자기록 환경에서 각광받는 기능적 접근 논리 모두 공공부문에서 생성

55) Barbara L. Craig, "Selected Themes in the Literature on Memory and Their Pertinence to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65(2), 2002, p.287.

56) Margaret Hedstrom,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More than a Metaphor, Less than an Analogy",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Terry Eastwood & Margaret Hedstrom eds., Santa Barbara: ABC-CLIO, LLC, 2010, p.176.

57) Jeannette A. Bastian, "Flowers for Homestead: A Case Study in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American Archivist* Vol.72(1), 2009, p.129.

58) Laura Millar, "Touchstone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and Archives", *Archivaria* Vol.61, 2006, pp.125-126.

된 대규모의 기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논리이며, 기록관리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역시 이들 기관에서 생성된 대량의 기록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 내 주류층의 행위내역이 반영된 기록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영역은 그동안 기록을 보존해왔으며, 아울러 수많은 유형의 기록들 가운데 생산량이 가장 많은 문자화된 기록을 대상으로 관리방법론을 정교화 시켜 왔다.

바로 여기서 사회적 기억은 기록관리 대상의 범위를 확장시켜준다. 즉 사회적 기억은 사회 내 지배층만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소수자의 목소리 역시 기록으로 포착해 관리·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속에 아카이브는 과거와 같이 업무의 부산물로 주어진 기록을 단순히 보관하고 이것들이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기록을 통해 사회적 기억을 형성시키는 지적 장소로서 간주되고 있다.⁵⁹⁾ 하지만 그동안 기록관리 영역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회적 소수자의 기록을 남기는 데에는 실패해왔다.

사회적 기억은 사회구성체 내 다양한 기억들의 유기적 결합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기록관리 영역은 다양한 목소리를 투영한 기록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아카이브는 과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기억의 보존소이지만, 한편으로 아카이브에 보존된 기록은 사회 내 권력관계를 반영한 사회적 구조체라 할 수 있다.⁶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동안 아카이브에 보존된 기록은 사회의 특권층 내지 주류층의 기억만을 대변해온 것이 사실이다. 기록은 인간 간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의 시공간 범위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정보원이라면, 기록관리 영역은 기억의 망각을 요구하는 권력에 대항해 사회 내 소수자

59) Tom Nesmith, "Seeing Archives: Postmodernism and the Changing Intellectual Place of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65(1), 2002, p.27.

60) Randall C. Jimerson, "Archives and Memory", *OCLC Systems & Services* Vol.19(3), 2003, p.89.

의 기억을 기록을 통해 남기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⁶¹⁾ 기록관리 영역은 권력의 반영으로부터 상관없이 사회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 내의 균형 있는 기억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회적 기억 구축에 일조해야 한다.⁶²⁾

또한 사회적 기억은 기록관리 영역이 수집·전송해야 할 기록의 범위를 보다 확대시켜준다. 그동안 기록의 정의에는 ‘매체 및 유형에 상관없이’란 구문이 항상 포함되어 왔지만, ‘쓰기’ 문화에 대한 전통적 지지로 인해 문서 위주로 기록의 관리 및 보존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에도 제3세계 국가의 70% 인구는 쓰기 기술이 없고 대신 ‘말하기’를 통해, 사회적 기억을 매우 정교한 구술 전통에 의해 보존해 오고 있지만,⁶³⁾ 아직도 이러한 전통은 기록관리 영역에서 등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내 다양한 공동체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스스로의 기억을 생성하고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기록만이 아닌 민간영역의 기록을 관리·보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동체들이 스스로의 기억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화 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식 역사에서 배제되고 제도권 아카이브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공동체의 사건과 기억들이 전송될 수 있다.⁶⁴⁾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록관리 영역에서는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기록 유형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록관리

61) Kenneth E. Foote, “To Remember and Forget: Archives, Memory, and Culture”, *American Archivist* Vol.53(3), 1990, pp.391-392.

62) Randall C. Jimerson, “Archives and Memory”, *OCLC Systems & Services* Vol.19(3), 2003, pp.89-94.

63) Jean-Pierre Wallot, “Archival Oneness in the Midst of Diversity: A Personal Perspective”, *American Archivist* Vol.59(1), 1996, p.19.

64)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한국기록학회, 2012, 10쪽.

영역에서는 보존기간 책정이란 법적 장치를 통해 사회 주류층의 네러티브를 대변하는 ‘쓰여진’ 기록들을 보존해왔고, 이렇게 남겨진 기록들은 당대의 사회상을 대표하는 거울인양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아카이브는 ‘국가의 기억 자체이다 내지 아카이브 없이는 기억도 없다’라는 슬로건을 주장하기 보다는, 오랜동안 잃어버렸거나 공식 기억에 의해 밀려난 과거의 수많은 기억들을 찾아내거나 복원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서 아카이브의 의미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⁶⁵⁾ 사회적 기억은 그동안 기록관리 영역에서 간과해 온 과거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을 제공해준다. 관료제적 기록을 보완하고 아카이브에 보존된 과거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쓰여진 기록으로 남지 않은 사회 비주류층의 네러티브를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수집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⁶⁶⁾ 아울러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 및 마을의 공동체 기록도 아카이빙 해야 할 것이다.⁶⁷⁾

마지막으로 기존의 출처주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앞선 2장에서 언급한대로 개인기억은 특정 사회적 집단의 맥락 내에 편입되고, 모든 집단기억은 일정 공간 및 시간의 범위가 규정된 사회적 맥락을 통해 형성됨을 감안할 때, 그동안 기록학 영역에서 맥락 확보를 위해 공헌해 왔던 출처주의 원리는 사회적 맥락 확보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집단기억의 형성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최근 전자기록 환경에서 더욱 중시되고 있는 ‘맥락’은 집단기억에서 강조하는 ‘맥락’과 출처주의 원리를 기반으로 조우가 가능하다.⁶⁸⁾

65) Margaret Hedstrom,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More than a Metaphor, Less than an Analogy”,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Terry Eastwood & Margaret Hedstrom eds., Santa Barbara: ABC-CLIO, LLC, 2010, p.176.

66) Jeannette A. Bastian, “Flowers for Homestead: A Case Study in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American Archivist* Vol.72(1), 2009, pp.119-120.

67) Terry Cook,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Vol.13(2-3), 2013, pp.113-114.

68) Jeannette A. Bastian, “In a “Houses of Memory”: Discovering the Provenance of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출처주의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록이 지닌 유일성과 상호연계성의 토대 위에 인간의 다원적인 행위를 관리·보존하기 위해 기록학 영역에서 그동안 강조해 온 것은 기록의 맥락(Context)이다. 기록의 맥락은 기록이 생성·관리·활용된 조직적·기능적 환경 및 기타 제반 환경을 의미한다.⁶⁹⁾ 기록은 인간의 행위내역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연원 및 배경에서 왜 생성되었는 가란 맥락의 확보 없이는 해당 기록의 내용 파악이 곤란하다. 맥락이 확보되어야만 누가 언제 어떠한 배경에서 왜 무엇을 수행했는지를 밝혀줌으로써 기록이 인간의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의 맥락을 원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기록학 영역에서는 출처주의 원리를 적용해왔다. 출처주의는 동일 조직 내지 단체, 개인 등에 관련된 기록을 동일 생산자의 조직 및 기능구조와 연동시켜 분류하는 원리를 말한다. 기록은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기록의 생산자는 곧 출처로 등치되며, 이러한 출처는 기록이 생성된 배경 내지 연원을 밝혀주는 구심점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논리에서 20세기 이후 단일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출처주의는 기록 간의 유기적 관계 형성 위에 기록의 맥락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자리해왔다.⁷⁰⁾

하지만 이러한 출처주의는 기록 간의 상호연계성을 근거로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생성된 방대한 기록들의 맥락 확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최소한의 방안으로, 기록의 생성과 관련된 모든 맥락을 확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기존의 출처주의 개념은 기록이 생성된 행정적 차

Place”, *Archival Issues* Vol.28(1), 2003-2004, p.15.

69) Richard Pearce-Moses,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Exposure Draft), Chicago: SAA, 2004, p.71.

70) 출처주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명훈, 『출처주의와 현대 기록 관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서울, 2003, 1-30쪽을 참조.

원의 고정된 맥락만을 제공하는 한계를 지닌다.⁷¹⁾ 즉 출처주의는 단일 조직의 범주 내에서 기록의 맥락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최근과 같이 다원적이면서도 복잡화된 기록이 지닌 보다 넓은 맥락의 파악에는 일정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억은 기록에 비해 매우 유동적이며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록을 통한 사회적 기억 형성을 위해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맥락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출처’(Societal Provenance)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회적 출처는 기록의 주제 및 내용에 앞서 왜 어떻게 기록이 생성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따라서 기존의 출처주의에 대한 이해를 인간 상호교류 및 소통의 사회적 기원으로 확대시켜준다. Tom Nesmith은 모든 기록은 기존의 생산자에 관한 정보를 넘어 사회적 출처를 지닌다고 전제하면서, 기존의 출처 개념을 뛰어넘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며 기록이 생성된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⁷²⁾

이러한 광의의 사회적 출처 개념은 기록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기억의 맥락에 적용할 수 있다.⁷³⁾ 단일 기관이 영위되는 한 사회의 법, 제도,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정보들은 단일 기관의 조직 내지 기능적 출처를 넘어서는 거대한 사회적 맥락을 제공하며, 이는 곧 특정 사회 내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기록 생산자들의 보다 넓은 맥락을 제공해주는 요소이자 기록을 통한 사회적 기억의 맥락 확보에 일조하게 된다. 이는

71) Jeannette A. Bastian, “Flowers for Homestead: A Case Study in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American Archivist* Vol.72(1), 2009, pp.129-130.

72) Tom Nesmith, “The Concept of Societal Provenance and Records of Nineteenth-Century Aboriginal-European Relations in Western Canada: Implications for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Archival Science* Vol.6(3-4), 2006, pp.352-353.

73) Jeannette A. Bastian, “In a “Houses of Memory”: Discovering the Provenance of Place”, *Archival Issues* Vol.28(1), 2003-2004, pp.16-17.

결국 기록을 통한 사회적 기억 형성에서, 기능이나 조직을 넘어서며 이 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성원이 상호 교류 및 소통, 활동, 생활하는 거대한 사회적 맥락을 제공해주게 된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최근의 사회 환경에서 기록학의 역할 정립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기록과 기억의 상관성 및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기록은 기억을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이 분명하지만 기록은 곧 기억으로 등치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해 기록학이 일조할 수 있는 역할과 함께 기록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록과 기억의 관계 정립을 위한 시론적 연구에 불과하다. 기록과 기억의 관계 및 사회적 기억 구축에 일조하는 기록학의 의미와 역할 모색을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시각에서의 방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다양한 학문 영역들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기록학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활발한 연구를 기대하며,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두 가지 영역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억 형성을 위한 기록학 영역의 역할 정립을 위해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는 분야 중 하나는 기록으로서의 구술이 지닌 의미 모색이다. 근대 이후 기록학 영역에서는 실증주의의 영향 속에 문자로 작성된 기록만을 과거의 행위내역에 대한 신실한 증거로 간주하며 학문적 이론 및 방법론을 개발시켜왔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속에 문자화된 기록의 객관성은 재숙고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 하에 모든 행위의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용이하

지 않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의사소통 수단인 말을 통한 구술은 사회적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유용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조명될 필요가 있다. 근대 시기 ‘쓰기’가 유일하면서도 보편화된 의사소통 방식이었다면,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음성과 영상 역시 손쉽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문자화된 기록을 통해 기억을 유지·전송하는 그동안 아카이브가 수행해왔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근대 이후 사회 구성 및 사회 조직의 복잡화와 함께 관료제로 대표되는 기록생성 메커니즘의 출현은 말 대신 문자화된 기록으로 의사소통을 일반화시켰고, 문자화된 기록은 과거 구술이나 기호 전통에서는 불가능했던 시간 및 장소를 초월한 정보의 교류 및 공유를 촉진시켜온 것이 사실이다.⁷⁴⁾ 하지만 최근 문자화된 기록이 지닌 객관적 증거로서의 속성은 의심받고 있으며 또 당대 주류층의 입장만이 기록으로 남기 쉽다는 점을 감안할 때, 또 하나의 기록인 구술은 사회적 기억을 후대에 전송하는 유용한 도구로 간주할 수 있다. 문자화된 기록이 당대의 활동을 남기지 않았거나 남길 수 없었던 곳에 구술은 생존자의 기억을 통해 사회적 기억으로 치환하는 방안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⁷⁵⁾

기록의 활용성을 제고시키는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한다. 기록을 보존해 후대에 전송하는 행위 자체로 사회적 기억 구축에 일조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아카이브에 보존된 기록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억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감안할 때 기록이 지닌 다원적인 의미 모색과 함께 기록의 의미 확산을 위해서는 기록의 홍보·아웃리치·열람 확대·공공 프로그램 개발 등 기록의 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최근의 네트워크 및 디지털 기술은 아카이브의 기록들을

74) Kenneth E. Foote, “To Remember and Forget: Archives, Memory, and Culture”, *American Archivist* Vol.53(3), 1990, p.379.

75) Jean-Pierre Wallot, “Archival Oneness in the Midst of Diversity: A Personal Perspective”, *American Archivist* Vol.59(1), 1996, p.19.

사회적 기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⁷⁶⁾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향후 기록의 사회적 기억화를 위한 새로운 웹 서비스 전략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단순한 기록의 웹 서비스 확대 만으로는 어렵다. 무분별한 과거 기록들이 무질서하게 범람함으로써 지속력 있는 굳건한 사회적 기억의 골격을 동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⁷⁷⁾ 기억이란 저장된 정보의 검색이 아닌 공유된 문화적 이해를 통해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⁷⁸⁾ 새로운 웹 서비스 전략에는 사회적 기억 선별을 위한 평가 기준 마련, 사회적 출처를 포착해 기술할 수 있는 요소 개발, 기록 속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록콘텐츠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아카이브간의 기록정보 공유 및 다양한 유관기관들과의 연계 검색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76) Trond Jacobsen, Ricardo Punzalan, Margaret Hedstrom, "Invoking "Collective Memory": Mapping the Emergence of a Concept in Archival Science", *Archival Science* Vol.13(2-3), 2013, p.225.

77) 이에 대한 논지에 대해서는 David Lowenthal, "Pandora's Plenitude: Archives for All Forever?"의 Abstract를 참조. <http://www.dundee.ac.uk/cais/memoryandidentity/abstract_lowenthal.htm>

78) Caroline Brown, "Memory, Identity and the Archival Paradigm: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Archival Science* Vol.13(2), 2013, p.89.

ABSTRACT

A Study on Roles of Archival Science for Building Social Memories

Kim, Myoung-Hun

Archival science is prior to explore meaning and role of record management in given environments rather than developing record management methodology.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s don't merely mean to exchange record management medium from paper to digital. The most important point exploring in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s is not management skills or methods, but meaning of records and role of record management in contemporary society. All these days, however, the theories and methodologies has been developed focusing on written records and public records mainly in the deep-rooted influence of positivism.

In such situations, the discussions of social memories can explore meanings and roles of record management in pluralistic society. Meanwhile, many articles in archival science has been widespread recognition that records will soon be just memories in terms of objective and neutral evidence. In recently, however, conviction on objectivity and neutrality of records has broken down by the influence of postmodernism on archival science.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rd and memory and to argue the roles of archival science for building social memories.

Key words : Record, Archive, Memory, Collective Memory, Social Memory, Oral History, Societal Provenance